

깨달은 말씀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 생각한다.  
영생은 한 번 얻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예매한 것과 같다.  
실제적인 것이 될 때는 마지막날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확정된 때는 부활하실 때  
눅 20:35-37 <sup>35</sup>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sup>36</sup>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sup>37</sup>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부활에 참여하여야 된다.

빌 3: 10-13 <sup>10</sup>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sup>11</sup>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sup>12</sup>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sup>13</sup>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구원의 세 단계

1. 얻은 구원 - 죄의 정죄에서 얻은 구원 [사망에서 생명으로]
2. 얻고 있는 구원 - 죄의 세력에서 얻는 구원 [의로운 삶]
3. 장차 얻을 구원 - 죄의 존재에서 얻을 구원 [영화]

이 단계를 잘 가르쳐주신 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유월절 - 문설주에 피 칠하고 집 안에 있으라고 함.

출 12 장에 나옴

피 칠하지 않는 집의 만 아들은 다 죽을 것이다.

개막나니 아들이나 착한 아들이나 다 산다. 피 칠한 집안에 있으면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의 공로가 전혀 필요없다.

전적으로 예수의 공로로 나온다.

엡 2: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선물로 얻은 구원 → 죄의 정죄에서 얻은 구원.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를 건넜다.

붉을 홍 - 紅海 Red Sea 갈대라는 의미도 있다.

칠십인 역 번역 LXX - 칠십인이 칠십일 안에 번역함.

홍해 -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을 표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침례받고 광야로 나옴.

고전 10:1-4 <sup>1</sup>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sup>2</sup>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sup>3</sup>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sup>4</sup>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행 7:38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 광야 = 교회

→ 교회 지도하시는 분 - 성령께서

오늘 교회는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스라엘 광야에서도 주셨는가?

느 9:20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구원받아 영의 사람이 되는데 누가 자꾸 침입하는가?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자 하는 생각을 넣어준다. - 우리는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롬 8:13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 순종

광야생활 -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얻는 기간

영생 예매권을 버리라고 제물, 명예, 욕심으로 유혹, 아말렉으로 공격.

제물로 유혹받은 사람 - 아간

권력에 넘어간 사람 - 고라와 아비람 (레위지파)

우리로 사소한 일로 공격을 받는다.

마음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야 한다.

이기게 하는 것이 누굴까?

히 12:4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겨도 저도 문제다. 이기면 내가 이겼다. 지면 족다 절망.

죄와 싸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싸우려면 똑바로 쳐다보아야 할 것 같지만 죄를 보면 죄를 닮는다.

내가 예수님을 봐야한다. 그 예수님이 피 흘려서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아니하겠다고 하심.

너희는 내가 승리한 승리 안에 있으라. (요 16:33) 거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라고 하신다.

요 15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 -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가 말라서 불사른다.

과실맺은 것은 농부가 하신다.

우리의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예수의 생명으로 하게 하신다.

예, 물 떠오라고 시킨 사람의 행동 - 떠온 사람 - 내가 떠왔다.

떠 온 사람은 수족 노릇을 한 것이다.

시킨 사람은 머리 노릇하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수족 노릇을 한 것이다.

성경의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건강한 지체노릇을 하는 것과 똑같다.

순종을 교회론을 떠나서 바르게 이해 안 된다.

교회 - 예수님의 몸

예수님 - 머리

교인들 - 지체 -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프다.

건강한 지체가 되는 것이 순종하는 길이다. 지체가 해놓고 내가 했다고 안 한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다.

머리가 지시한대로 우리 지체는 움직인다. 그날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한다. 건강한 지체 노릇 밖에 없으니깐.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조심해야 한다.

포도원에 사람들여 보내는 이야기

아침 일찍이 가서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들여보냈다.

그다음, 3 시, 6 시, 구시, 11 시, 12 시에 끝난다. 한시간 일 했다. 아침에 들어온 사람은 12 시간 일 했다.

샬 -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 먼저 준다. - 한 데나리온, 주인 참 너그럽고 후하다고 생각.

그러나 먼저 들어온 사람들 - 불만 - 주인이 자기에게 빚졌다고 생각한다. 일 했다고 생각.

교회에서 그런 생각으로 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성화를 이루었으니 하나님 상 줘야지... 이만큼 완전하게 됐으니 상줘야지...

순종을 철저히 잘 한 사람들의 생각 - 하나님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눅 17:5-10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sup>6</sup>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sup>7</sup>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sup>8</sup>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sup>9</sup>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사례하겠느냐 <sup>10</sup>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의 순종이 그런 것이다. 주인이 하게 한 것이다. 우리는 건강한 지체 노릇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다. 우리가 건강한 지체 노릇을 못하면 하나님께 황송하다. 예수님 건강하게 치료해주세요 한다. 건강하게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지체노릇을 한다. → 죄의 세력에서 구원받는 기간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순종을 잘 했다고 하신다. - 신 1:36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밭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순종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순종하게 하는 주인은 예수님.

우리는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에 지체다. 그런데 가끔 몸에 불만이 많다. 행정자들이 성경대로 안 한다.

나가서 열심히 일한다. 전도한다. 그런데 지체가 몸에서 떨어지면 더 이상 지체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론에 대해 성경적인 이해를 바르게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건강한 지체로써 교회의 지체의 직분을 다 해야 한다. 지체의 기능이 더 맞겠다.

우리 마지막 남은 교회로써 대총회와 모든 조직들 속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그 조직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한 진리를 따라서 살게해 주셨다. 우리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 조직 안에 있는 깨달은 성경적인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건강한 지체로 생활해 가던 사람이 살아간 사람이 예수님 재림할 때에 죄의 존재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체노릇을 못하고 다 떨어져나갔다. 그래서 말라 죽었다. 안 떨어지고 붙어 있는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벧전 1:5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것이 광야생활이다. - 교회생활 지체로써 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붙어있는 사람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된다. 그것은 예수의 몸에서 떨어진다는 말과 같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다. 교회에서 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승리해야 한다.

엡 6:11-18 그리스도인의 무장 - 공격용 무기가 없다. 방어용 무기밖에 없다.

11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싸워서 이기라고 하지 않으셨다. 요 16:33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고 했다. 그러면 이긴 사람이다.

그러나 사단은 멀리서 활로 쏜다. 그래서 화살을 잘 맞으라고 하신다. 그래도 화살이 꽃쳤다.

안 아프면 어떡하겠는가? 화살이 아프면 생명과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아프면 치료하라는 소리다.

예수님께 가서 고쳐주세요 한다. 발 씻는 회개라고 한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 씻을 필요밖에 없다.

우리는 매일 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발을 씻어야 한다.

계 7:14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완전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계 19:8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사 64:6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옳은 행실은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 것이다.

계 22:14 그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 순간 기도해야겠지만 하루의 일 마치고 잠 자리에 들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허물지고 상처입은 것도 다 씻어주시고 혹시 제가 잘 한 것이 있어도 보혈로 다 씻어 주세요. 그래서 깨끗한 빛난 세마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의 나 자체를 받아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광야생활을 깨끗한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순종의 생활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것이다.